

# “건강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 축제·화합 한마당”

## 동강대 ‘제2회 K컬처 페스티벌’ 성료...한류 문화 소풍 베트남·튀르키예·우크라이나 등 12개국 28개 팀 참가

동강대학교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과 글로벌 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K-POP과 K-한글 등 한류 문화 축제의 장을 열었다.

동강대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제2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강대는 25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다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호남권 대학 최초로 국내·외국인이 함께하는 ‘K-컬처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전진숙·조인철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문인 광주북구청장, 광주대 김동진 총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길강욱 소장, 전미용 광주북구 의원, 후성학원 이사 등 지자체 및 기업 인사가 대거 참석해 ‘글로벌 동강’에 동참했다.

또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등도 영상

메시지로 ‘K-컬처 페스티벌’을 축하했다.

여기에 동강대 어학연수생을 비롯해 베트남, 튀르키예, 카메룬,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제 외국인들이 축제의 장을 맘껏 즐겼다.

‘K-컬처 페스티벌’은 스테마가 있는 ‘K-POP 콘테스트’ △주제가 있는 ‘K-한글 콘테스트’ 등 2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예선을 통과한 28(K-POP 15·한글 13)개 팀이 실력을 뽐냈다.

‘K-POP 콘테스트’는 한류를 콘셉트로 발표된 △K-한글송 △K-뮤직송 △K-베이커리송 △K-푸드감지송을 비롯해 △다문화사랑노래(우리며느리, 바다 건너 온 사랑, 함께한 사랑, 사랑해요) 4곡 등 지정곡 총 8곡 중 1곡을 선택하고 자유곡 1곡을 불렀다.

‘K-한글 콘테스트’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에서 생



동강대는 최근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제2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활하면서 느꼈던 교육, 음식, 교통, 예절, 존댓말, 식사, 낮잠, 민속명절, 전통의상 등 자국 문화와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관람객들과 소통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K-POP’ 부문은 베트남 출신 도탄정씨가, ‘K-한글’ 부문은 ‘법상문화·낮잠’에 대해 이야기 한 베트남 출신 응웬티란씨가 각각 받았다.

이밖에도 전통무용 및 판소리, 난타공연, 태권도

시범, 서플댄스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세계를 주도하는 K-문화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생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 앞으로 동강대가 글로벌 성장을 위한 가치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inusu@gwangnam.co.kr

# PEOPLE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 조선대병원 임직원 대상 감염관리행사 개최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감염관리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및 감염관리 실천 문화 정착을 목표로 체험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핸드스캐너를 활용한 손 위생 정확도 평가, 안전카터터·니들리스 컵백트 실습을 통한 주사침 자상 예방 교육,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시연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윤나라 감염관리실장은 “감염관리의 기본은 손 위생과 개인 보호구의 정확한 사용에 있다”며 “이번 행사를 의료진 모두가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기독병원, 구강 건강관리 교육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광주보건대학교 통합치위생실습실에서 지역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 건강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건강돌봄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교육’의 하나로, 광주지역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약 2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을 위한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교육은 김경명 광주시청 돌봄정책과 팀장의 ‘통합돌봄의 이해’와 하명옥 광주보건대 치위생학과 교수의 ‘방문 대상자의 구강 특성과 수행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입 제조 시연, 구강 내·외 미세기기 활용법, 방문 구강관리 용품 실습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광주기독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재가노인의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지역 보건소 실무자들의 통합돌봄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여수광양항만공사, 독거어르신에 건강꾸러미 전달

### 건강·위생 물품 지원...생신잔치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여수시노인복지관과 함께 여수시 거문도를 찾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꾸러미 100세대 전달식과 생신잔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여름철을 맞아 의료,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됐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및 위생 물품을 전달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 114km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뱃길로 3시간 이상 소요되며 주민 830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대부분이다.

행사는 항만공사의 항만사랑봉사대가 직접 참여해 생신상을 정성껏 차리고 손수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들께 건강키트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여수시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거문도까지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서지역을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관이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광양=김주진 기자 kjkjin@gwangnam.co.kr

## 여수시, 전 직원 대상 해양 재난 대응 교육

여수시는 해양경찰교육원과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해양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기명 시장이 주간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먼저 해양 관련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해양 재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 내 선박 안전실습장과 파출소실습장 등 2곳에서 매일 1~2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해양 재난 상황에 대한 공직자들의 실천 감각을 끌어올리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이 1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 “예술의 힘 통해 ‘문화중심도시 길’ 열겠다”

### 문화계 인사 주축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 출범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이하 포럼)이 1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 포럼은 이날 예술의 힘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출범 선언문과 3개 방향, 9개 분야의 실천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술계 원로이자 무등현대미술관 관장인 정송규 선생과 전 광주미술협회장인 금초 정광주 선생의 격려사로 포럼의 출범을 축하했고, 명진 광주시의회 교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예술이 사라지면 도시도 소멸한다”는 포럼의 슬로건에 깊이 공감하며 “광주는 예술로 다시 도약할 도시”라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은 ‘예술로 백년 미래를 설계한다’는 비전 아래, 광주의 예술성과 민주적 시민정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운동을 제안했다. 특히 선진국의 예술문화 방향성을 볼 때 오늘날 미래형 신산업과 함께 체감형 신산업으로 예술문화 기반의 관광산업을 추구해야 하며 수준 높은 예술활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포럼은 광주 예술계가 처한 현실에 △예술 유통

망 붕괴 △공공공간 및 예산 부족 △예술정책에 대한 행정의 낮은 이해 △예술인의 고립 등을 진단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미디어, 기후위기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예술이 단지 ‘표현’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의 실천도구가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럼은 예술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근육이자 시민 삶의 방식으로 정의했다.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론’을 기반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문화정책 전환의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예술인의 창작과 발표가 자유로운 도시, 시민과 예술인이 협력하는 집단지성 체계, 문화강국 시대를 선도할 광주형 모델 등 실천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의 3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실천을 통해 광주의 백년 미래를 디자인한다”며, “예술의 힘으로 시민과 함께 문화중심도시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할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

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장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장동 대광로제비마을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운세 (음력 5월 22일)

**띠** 48년생 달도 처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 60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72년생 조력자를 찾아보라 84년생 확대하거나 숨겨라 하지 마라 96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것

**뱀** 51년생 건강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 63년생 계획하는 대로 이뤄진다 75년생 분쟁으로 승사까지 확대된다 87년생 지나친 집착은 망칠 수도 있다 99년생 친구로 인한 근심수가 있다

**말** 54년생 불화가 생겨 심한 갈등을 겪는다 66년생 체면을 의식하지 마라 78년생 부탁한 일은 기대하지 마라 90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돼지** 57년생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 69년생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라 81년생 구분을 해두어야만 한다 93년생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49년생 자녀에 대해 관찰이 필요 할것 61년생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 해결하라 73년생 근심 마라, 그 돈 해결 될 것이다 85년생 귀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라 97년생 경쟁이 예상되니 만전을 기하라

52년생 말단 직원의 말을 들어라 64년생 속 사정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76년생 실행 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 88년생 남비하지 말고 아껴 두라

55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67년생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일을 놓친다 79년생 부탁한 일이 있었다면 기대하지 마라 91년생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8년생 문서 운세가 가히 좋지 않다 70년생 필연적인 관계이다 82년생 이치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 94년생 별문제가 없는데 반대급부 심하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구슬이 서 말라도 꿰어야 보배 62년생 부동산 거래에 허점이 보인다 74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진전이 보인다 86년생 여러가지 축연으로 가능해 보라 98년생 이성에 대한 집착은 금물

**범** 53년생 기본 상하더라도 참아야 후회없다 65년생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마라 77년생 늦어가고 생각 말고 다음을 준비하라 89년생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원숭이** 56년생 남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 68년생 상수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 80년생 문서와 명예가 함께 하겠다 92년생 욕심도 줄이지만 휴식이 필요하다

**돼지** 59년생 정리 단계를 들어가게 될 것 71년생 현상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라 83년생 무모한 일은 피하라 95년생 빨리 마음을 잡고 살아야 한다